

'3선 도전' 장휘국... 이정선·최영태 '추격'

■ 6·13 지방선거 판세분석- 광주시교육감

이 "광주교육 혁신... 시민지원청 설립 등 차별화" 장 "지지세 결집... 문 정부 교육개혁 완성 파트너" 최 "단일후보·시민단체 지지율 상승... 책임자 강조"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장휘국 교육감에 맞서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과 최영태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 단일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 장휘국 후보의 독주를 예상했으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두 후보가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정선 후보 측은 장 후보가 여전히 지지도는 높지만 하락세를 보이며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장 후보의 3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반응과 학력저하와 청렴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장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이념 논쟁으로 번진 색깔론에 대해서는 이 후보 측은 "교육은 진보보

보수도 없다"며 "내 아이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교육감을 뽑아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방향을 광주교육 혁신으로 잡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학생들만 바라보는 교육과 혁신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태 후보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한 26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거판세가 백중지세라는 입장이다.

유권자들은 장 후보의 3선에 대한 거부감과 이 후보의 경선사태에 따른 신뢰도 하락이 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후보의 시민단체 활동, 5·18민주화 정신 계승과 김대중 정치 철학을 가르친 교육자, 교육개혁 등의 경력은 장점으로 꼽힌다. 최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혁신교육감 단일후보인 자신이 광주교육감 책임자라는 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남은 기간 토론회와 유세를 통해 얼굴 알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 측은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를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광주형 새싹학교 운영, 민주평화인권도시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후보 측은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좁아졌긴 하지만 대세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후보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되려 결집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의 협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으나 두꺼운 지지층은 침묵하는 다수로, 대세론을 굳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3선 부당에 장 후보 측은 "3선 출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들에게 3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호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8년 광주교육이 추진한 혁신교육과 유사하고, 정부의 교육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책임감을 강조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이정선 장휘국 최영태

싱가포르 북미회담장 '센토사 섬'?

백악관 "세부사항 대부분 확정"... 잇단 외신 보도

6·12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 앞바다 센토사 섬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3일 밤 회담준비 동향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해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실무팀이 센토사 섬을 회담장소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본섬과 연결된 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만 차단하면 외부접근을 봉쇄할 수 있는 센토사 섬의 호텔 중 한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 측은 미국 실무팀의 제안에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전과 경호, 회담장소, 숙소, 부대일정 등 실무협의를 거의 마무리됐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됐던 싱가포르의 주요 호텔 중 미국 실무준비팀이 머물러 온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만이 회담예정일인 12일 전후로 객실과 식당 예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익명의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헤이건 부비서실장이 지난 주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실무팀 수석대표인 김

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만나 세부사항 대부분을 확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기간 머물 장소로는 북한 실무팀 숙소이기도 한 풀러턴 호텔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련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국제적 호텔체인을 선호하지 못해 중국과 사업적 연관관계가 있는 싱가포르인인 운영사는 풀러턴 호텔 등 현지호텔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도심호텔에 숙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연구원(RSIS) 소속 국제관계 전문가 그레이엄 웡-웡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그릴라 호텔에 머물고, 김 위원장은 풀러턴 호텔에 숙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담장으로는 카펠라 호텔이나 센토사 섬의 다른 호텔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보안·경호 전문가가 꼽은 최적의 회담장은 상그릴라 호텔이라고 보도했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국제회의 개최 노후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6·13 지방선거 오는 8일 '사전투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3명의 청와대 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내 발음이 왜 이리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음이 계속 틀리자 웃고 있다. /연합뉴스

"5·18진상규명위, 조사권 강화해야"

최경환, '5·18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 직원 수를 현재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조사대상자의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관련, 현행법에서 자료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 부분을 삭제하고, 인적·물적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했다.

직원 정수는 암매장지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5·18당시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성폭력, 5·11연구위원회 조작의혹 사건,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등 조사대상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50명 이내의 정원으로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률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해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1,000만원의 과태료만으로는 실효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된 5월 단체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 제도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 관련 요건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돼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운 기자

청, 남북미회담 가능성 커졌어도 '로키'

북미 실무협상 예의주시하며 '물밑중재' 전망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회담을 기다리는 청와대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예방을 받고 기자들을 만나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청와대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음이 계속 틀리자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평론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jnreviews@daum.net

전남매일 월간 자치평론
구독문의 062) 720-1006

"음식출장 행사 25년 전통" 파티외식산업

질순전지, 팔순전지, 아회결혼식, 성당교회 결혼식 전문업체 / 시내, 시외 출장 뷔페 전문

음식물 고객 배상 화재보험 10억원 가입업체

단체도시락 제조 납품, 단체식사 병행 / 기업체 / 학교·세무·위생영양, 위생급식

☎ 식탁·의자·회갑·팔순·상차림·케익·프랑카드·서비스·바·행사장·지문·밴드·사진·비디오·각설이·출장·가능함

전문 파티 플래너의 진정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무료상담전화 080-226-0085 / 010-4601-3222

* 소량이라도 약속한 시간까지 배달합니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6만원

시의 기타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림 박배성 302-0316-649511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됨 (신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